

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식품부 '쌀 적정 생산'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정부의 쌀 수급 안정 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지속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등 농산식품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벼 재배 면적을 전년보다 1143ha 줄이며 당초 목표였던 1458ha 대비 78%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벼가 사라진 자리에는 타작물이 채워졌다. 시의 타작물 재배 면적은 총 3538ha로 확대됐으며, 지역 농가들은 논공과 하계 조사료, 가루쌀 등 다양한 대체 작물을 육성하며 소득원 다변화를 꾀했다.

정읍시가 타 시·군의 모범 사례로 꼽힌 데에는 과감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주요했다. 시는 △논공 채종포(씨앗 받기 밭) 단지 조성 사업 △발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 사업 △공 선별장 지원 사업 △국산 밀 건조시설 지원 사업 등 식량 자급 기반을 다지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고창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제작·등록된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검출'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비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하단 등 운전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기한과 압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화재 발생 시에는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시동을 끄고, 초기 단계에서만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해야 하며 불길에 커질 경우 즉시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민생지원금 30만원 지원

내년 1월 19일부터 신청... 전액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 결정은 고물가와 난방비 부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위기가 한계에 다다랐

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 종료 이후 카드 매출 증가율이 7월 4.9%에서 8월 1.3%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월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전망지수(BSI) 역시 전월 대비 6.5 포인트 하락하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뚜렷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정책적 연속성 아래, 민생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정읍시와 시의회가 긴밀히 협의한 결과다.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12월 15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며, 소득이나 재산, 노동 여부와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빚을 내거나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시의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올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220억원을 절감하는 등 총 429억원의 여유 재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 중 305억원을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으로 투입해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2028년 1월 1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 형태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생활인구 42만명... 전년 대비 7만명 급증

관광·축제효과·스포츠대회·외국인 계절근로 등... 방문객 크게 증가·지역경제 활력 확대

전북 고창군의 생활인구가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올해 큰 폭으로 늘었다.

15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생활인구' 분석 결과, 2025년 5월 기준 고창군 생활인구는 4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7만명 증가했다. 이 기간 체류인구는 36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7.2배에 달한다.

특히 행정안전부 발표자료(전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변동)에서도 고창군은 전국 상위권 증가 지역으로 손꼽히며 주목받았다.

앞서 지난해에도 봄 시즌 고창군 생활인구는 4월 36만명, 5월 35만명, 6월 32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3월) 26만명 대비 6만명 이상 증가했다. 고창군의 봄~초여름 시즌 생활인구 급증의 이유로는 △고창정보리밭 축제 등 대표축제의 인기 △전지훈련·스포츠대회 등 체류형 스포츠 관광 활성화와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규모 유입 △전북 외 지역(타 시도) 방문객 비율 약 75%에 달하는 높은 전국적 관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고창을 찾은 인연의 끈은 고창사랑기부포 이어져 고창에 17억2500여 만원(3년 누적)을 기탁하고, 사이버고창군민, 고창농특산물 소광물 구입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던 인구소멸 지역에 밝은 햇살이 되어 주고 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른 체류인구 및 외국인 방문객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지역 경제활력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로 활용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농식품부 '쌀 적정생산'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정부의 쌀 수급 안정 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지속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등 농산식품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 쌀값 폭락을 막고 수급 안정을 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총 2만 199ha의 벼 재배 면적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벼 재배 면적을 전년보다 1143ha 줄이며 당초 목표였던 1458ha 대비 78%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벼가 사라진 자리에는 타작물이 채워졌다. 시의 타작물 재배 면적은 총 3538ha로 확대됐으며, 지역 농가들은 논공과 하계 조사료, 가루쌀 등 다양한 대체 작물을 육성하며 소득원 다변화를 꾀했다.

정읍시가 타 시·군의 모범 사례로 꼽힌 데에는 과감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주요했다.

시는 △논공 채종포(씨앗 받기 밭) 단지 조성 사업 △발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 사업 △공 선별장 지원 사업 △국산 밀 건조시설 지원 사업 등 식량 자급 기반을 다지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정읍=김대환기자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앞장서 대응해야"

권익현 부안군수, 2026년 정부 업무보고 관련 선제 대응 전략 주문



업 전환, 지역 균형발전, 인구·일자리 대응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각 부서는 부처별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해 군정과 연계 가능한 신규 사업과 국비 대응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15일 간부회의를 열고 정부의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정책과 2026년도 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전 부서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권익현 군수는 "정부가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화하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연간 4GW 보급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핵심 기반시설 확충에 나서는 등 정책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연계 신재생에너지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단기적으로 기존 부두의 기능 전환과 확대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권역별 해상풍력 지원부두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 해역이 전북권 대표 지원 거점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입지 여건, 인허가 가능성, 항만 인프라 등 전반적인 대응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주민과 어업인 수용성 확보가 정부 정책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상생 모델을 조기에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군수는 정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 "정부는 12월 중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산

계 가능한 신규 사업과 국비 대응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연말·연초를 맞아 각종 사업 공고와 사업시행자 선정이 집중되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수행 역량과 사업 지원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 군민이 신뢰할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자재 점검을 철저히 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달라"며 "군민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끝으로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 정부 정책이 우리 군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국내 최초 농촌형 AI 활용 교육 진행

수료식·시상식 개최... '굴까네' 김현진 농부대상 수상

'부안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최근 지난 3개월간 진행된 농촌형 AI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 과정 수료식 및 시상식을 신활력공작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교육 수료를 넘어 국내 최초로 시도된 혁신적인 AI 교육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진단은 지난 9월 구글의 최신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Veo3(베오3)'가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이를 발 빠르게 도입해 지난달까지 농업 및 농식품 중사자를 대상으로 실습형 교육을 운영해 왔다.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인 대상의 영예는 '굴까네'의 김현진 농부에게 돌아갔다. 수상자는 지난 1일 부안군청에서 열린 성과공유회에서 100여명의 현장 참여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김현진 농부가 제작한 '팍터켓' 영상은 AI 동영상 생성 모델의 기능을 심층 활용해 영상은 물론 음성과 배경음악까지 AI로 완벽하게 구현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위주 특강에서 벗어나 농민들이 직접 AI 툴을 다루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국내 최초의 실습형 콘텐츠 제작 교육이라는 점에서 농업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이다.

현재 AI 동영상 생성 모델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고품질의 CF 수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 마케팅 비용 부담이 큰 농가들에게 최적의 홍보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10여명의 농민들은 각자 농산물과 농장을 홍보하는 4분 이상 장면 콘텐츠를 완성해 내는 성과를 거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